

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어떻게 돼가나

하과제

글로벌 경쟁력 위한 노사협력 우선

생산량 60만대는 돼야 경기에 안 흔들려

근무조건·인력충원 등 대승적 합의 시급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광주공장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경기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0만대는 돼야 경기에 안 흔들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노사간 원활한 협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양아 보인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엔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근무조건 변화와 인력 충원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광주공장 라인 합리화 사업, 2010년 50만대 재편 사업 등 생산규모를 늘릴 때마다 노사 갈등은 되풀이 됐다.

50만대 재편 사업 당시 노사는 증산이라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인력 재배치 문제로 7개월간이나 표류했다. 이에 따라 증산 계획만 믿고 인력 충원과 설비 증설에 투자한 협력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올해 62만대 증산 프로젝트 역시 출발은 삐걱했다.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연 뒤 노사

협의를 시작했지만 4개월간 합의를 못해 증산공사가 늦춰졌다. 한 때 증산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도 2공장 공사를 놓고 부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노사가 합의를 이뤄 전착공장 신축, 의장공장 증축, 기반시설 확

충 등이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설비공사도 지난 9월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는 등 하드웨어는 순조롭게 갖춰지고 있다.

◇노사 대승적 합의 기대=문제는 근무조건, 인력충원 등 증산 프로젝트를 가동할 소프트웨어다. 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고, 노조는 노동강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다보면 증산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장기화되면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된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은 9만2000여대의 차량 생산이 밀려있다. 스포

티지R이 3만6000대, 쏘울 2만7000대, 봉고트럭 2만2000대, 카렌스 7500대 등이다.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도 노사 화합과 사회나눔 활동을 바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62만대 증산 성공의 지름길이고, 글로벌 공장 도약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62만대 증산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기아차가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간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 창업축제 'VISION 2012' 28일 오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조선대학교 창업축제인 'VISION 2012'행사가 창업·취업 동아리연합회(회장 전병성 건축학부 4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 19개 창업·취업 동아리가 지난 1년 동안 거둔 실적과 향후 추진할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2월 기업 체감경기 4년만에 최악

BSI 전망지수 82...금융위기 이후 최저

12월 우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4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종합경기 전망치 원지수가 82를 기록, 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 3월(76.1) 이후 최저치다.

BSI 수치가 100 이하라는 것은 전

달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존 실물경제 위기·가계부채 최고치 경신 등 기존 악재에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재정절벽 우려 재점화·중국 시진핑 체제의 내수중심 경제 전환 등 새로운 불안요인이 겹친 결과로 전경련은 풀이했다.

BSI가 7개월 이상 기준치를 밑돌 것은 1997년 외환위기(31개월)·2004년 카드대란(9개월)·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1개월) 등 심각한 경기침

체기에 서만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90.3), 내수(96.1), 투자(93.8), 고용(98.9), 자금사정(93.0), 채산성(85.8)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74.3)이 경공업(95.3)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BSI 11월 실적치는 82.2로 집계돼 최근 5개월 연속 80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90.6), 내수(96.3), 투자(90.6), 고용(98.3), 자금사정(94.9), 채산성(85.1) 등 전 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인 기아차 광주2공장의 스포티지R 생산 라인.

포스코 등 27개 기업
공정거래 준수 우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스코 등 27개 기업을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으로 선정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CP 등급평가는 39개 기업이 신청했다. 신청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6%로 지난해의 13%보다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9개, 포스코 8개, 대림 4개, 풀무원 3개, 삼성 3개 순이었다. /연합뉴스

10월 항만 물동량 작년보다 3% 줄어

광양항은 수출입 증가로 10.4% 증가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억1192만t으로 작년동월의 1억1544만t보다 3.0%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월간 항만 물동량은 9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올해 1~10월 항만 물동량은 11억86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억8379만t)보다 2.3% 늘어났다. 지난달 물동량을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기계류, 유류 등의 수출입 증가로 작년 10월보다 3.5%, 10.4%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울산항과 평택·당진항은 유류와 화공품 등의 수출입 물량 감소로 각각 7.9%, 3.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광석과 기계류는 2.2%, 13.0% 각각 증가했지만 나머지 품목의 물동량은 대부분 줄어 들었다.

전국 항만의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은 지난해 같은 달 189만8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보다 0.2% 증가한 190만2000TEU를 기록했다.

1~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세계경기 위축, 내수 부진 등의 악조건으로 수출입 물동량(114만5000TEU)이 작년 10월보다 2.6% 감소했지만 환적화물(72만2000TEU)은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항은 5.3% 감소한 17만6000TEU를, 인천항은 5.6% 감소한 16만9000TEU를 각각 처리했다. /연합뉴스

한국실리콘 공장 절반 가동 중단

유동성 위기...1000억원대 유상증자도 무산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2위 업체인 한국실리콘이 유동성 위기로 공장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졌다.

전남 여수산단내 한국실리콘은 최근 주력 생산품인 태양전지용인 폴리실리콘의 국제시장 가격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3일부터 공장 2개동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해 28일 가동률을 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kg당 최소 19달러 이상이 돼야 할 폴리실리콘 국제가격이 1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매출액이 지난해 1503억원에서 올해는 564억원으로

급감했다.

자금난을 겪던 한국실리콘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 210억원 중 두달치 14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월분 전기료 70억원은 현금 44억원과 어음으로 끊어 해결했다.

한국실리콘은 최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10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요 주주들과 임원진들간의 불화로 이마저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대금 500억원도 미지불한 상태다.

김길근 지원팀장은 “한국실리콘은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업체”라며 “시장가격이 정상화 되는 내년 상반기쯤 자금난을 해결해 정상가동 하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코스피지수	1912.78 (-12.42)
▲ 코스닥지수	494.48 (+0.85)
▲ 금리 (국고채 3년)	2.83% (-0.01)
▲ 원·달러 환율	1086.50원 (+2.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하게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

수지의 착한 선물

페스티벌

행사기간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01월 10일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마친 고객 전원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EOS

EOS M

PowerShot

리무아 구스다운

정품 배터리

EOS 60D

EOS 650D

어댑터 EF-EOS M

스피드라이트 90EX

정품 배터리

EOS M

정품 배터리

CGV 영화관람권 (5매)

복시방 핸드크림 (150ml)

PowerShot G1X · G15 · S110

SX50 HS · SX500 IS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